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차)

개최일시	2020. 1. 14(화) 17:30~22:00	회의장소	약학관 B동 108호
참석자 (13명)	강동범(교무처장), 김민서(사범대학 공동대표), 김우정(대학원 학생회장), 김효민(학부 부총학생회장), 백옥경(학생처장), 오희아(학부 총학생회장), 유세경(기획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이준엽(관리처장), 임지혜(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최수인(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최혜련(예산팀장), 홍기석(총무처장)		
불참자 (0명)			
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2. 예산 관련 학부 학생위원 요구안 관련 논의 		
내용	<p>■ 개회</p> <p>위원장(교무처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과반수 참석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p> <p>■ 회의내용</p> <p>1. 참관인 관련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학생처장이 개인 사정으로 늦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말하며 등심위 위원과 서기를 제외한 참관인에게 퇴장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입장문 서명을 제출하며 구조 관련 논의를 4월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기말인 2~3월은 학교 학사일정 등과 관련하여 본부 일정이 바쁜 시기임을 답하고, 참관인에게 퇴장을 요청하며 기존 회의의 결정사항을 따라 줄 것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연서명을 한 학생들이 300명 가까이 되며 학생의 의견을 들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과거 회의에서 논의하여 합의한 규칙은 따라야 한다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러한 규칙은 논의한 적 없으며 참관을 불허한 		

다는 것 또한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규칙에 관한 내용을 바꾸려면 새로운 논의를 해야 하며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참관과 관련해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전 논의에서도 파행했다고 보았으며 학생의원은 참관불허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구조 관련 논의 개최는 4월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1월 말이나 다음 주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참관인 허용에 대해서는 작년 학생위원과 집중적으로 논의한 사항이라고 답하다. 과거의 약속을 고치자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이전의 논의에 합의한 적이 없어 못 지키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것은 협상할 수 없어서 끝났던 것이며 학생의원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는 대표성을 가진 의결기구라고 말한다. 참관인 관련 논의는 2018학년도 등심위에서도 말했듯이 참관인을 허용하는 것 보다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임하고, 회의록 작성 시에 논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논의 취지와 맥락이 잘 들어나도록 기록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한다. 이전 회의에서 참관인 관련하여 많은 논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므로, 이번 회의의 안건 진행을 위해 참관인은 퇴장하기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다른 위원들이 회의에 늦은 이유를 질의하고, 관리처장이 지금의 논의는 건설적이지 않으니 차후에 의견을 달라고 제안하다.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참관인에게 퇴장을 요청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구조 관련 논의가 결산이 끝나고 진행되면 다음 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 구성원이 등심위 성원일 때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산 등심위 전이나 결산 등심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일정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일단 참관인이 나가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가 끝난 상황에서는 현 구성원이 등심위 성원이 아닐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는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는 없음을 말하며, 기존 등심위 결정 사항을 따라 줄 것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이번 회의 때 구조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이후에 날짜를 잡아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학생위원들이 빨리 논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1월에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확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관련 논의를 말한 적이 있다고 답하다. 등심위 구조가 학생위원이 반대를 하여도 결정되었다고 정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보를 한 것이지 동의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한다.

- 위원장이 구조 관련해서는 차후에 논의하자고 말하며 참관인에게 퇴장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참관불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으며 어떤 부분에서 참관이 안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2014년 회의의 합의사항이며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참관인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학생위원의 입장은 알겠으나 쉽게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니므로 오늘 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한다. 회의 날짜를 빨리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참관이 필요한 이유를 짧게 발언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제안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 내 정해진 규정이 없으며 학교 홈페이지에 등심위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말한다. 타 학교는 등심위 규정이 올라오고 바뀔 때마다 새롭게 올라오는 것에 반해 본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본교 등심위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말한다.

- 관리처장이 회의를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학생위원이 참관인 허용을 요구하는 취지만 간단히 말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14년부터 논의를 한 것이면 참관에 대해 학생의 의견은 충분히 피력한 것인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과거 회의록에서 볼 수 있듯이 참관인 허용 시에 회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왜곡될 수 있다고 답변하다. 회의록을 통한 공개는 검토를

거쳐 각 위원의 발언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참관인은 회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참관이 불허된 것이며,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되기 전까지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기획처장이 참관인 허용이 안 됨을 말하며 퇴장을 요청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의 세부 규정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되지 않음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규정을 만들 때 학생 참여가 보장되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내부규정은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홈페이지 열람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은 학생위원들이 참관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나 과거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참관이 불가하다고 말한다. 참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원회가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거나,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할 때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본교 등심위는 학생위원이 6명이나 있고, 회의록을 통해 회의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으니 참관인 허용의 타당성이 적다고 말하며, 현재 회의 시작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하며 참관인에게 퇴장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 규정에 따르라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작년에 여러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규정의 효력에 대해 논의를 진행 하기는 어려우며 회의 진행을 위해 참관인이 퇴장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등심위는 발언 내용이 속기록처럼 공개되고 있으며, 학생위원들이 학생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참관의 실질적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한다. 등심위 구조 개선에 대해 결산 등심위 전에 논의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 가능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말하며,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 참관인 퇴장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근거가 부족하며 회의록을 상세히 쓰기로 한 것은 2018년이 아닌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현재 공개되는 것은 회의록이며 투명하게 내용을 적는 속기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회의록이든 속기록이든 등심위에서 논의하는 것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회의록에는 타교 사례 참고라고만 적혀있는 등 발언이 그대로 담겨있지 않아 다른 학생들이 회의록만 보고 회의장 내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등심위에서 법인 관련된 얘기는 공문으로 전달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 법인도 책임이 있으니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등심위 내규가 있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에 참관이 부적절하다는 말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이 앞선 회의에서 참관과 관련된 논의를 했고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학생위원이 현재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회의 내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구조개혁문제는 논의할 사항이 많기도 하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하다. 위원장이 참관인 퇴장을 재차 요청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 위원 외의 학생들이 참관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결산 등심위에 학생들의 참관을 허용 하는 것을 제안하다. 이어 결산 등심위는 언제 진행될 예정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결산 등심위는 4월 말에 진행된다고 답변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학생들이 참관하러 온 이유는 구조 관련 등심위 때 참관과 관련된 충분하고 긍정적인 논의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며 퇴장 전에 참관인 허용을 포함한 구조 관련 등심위 개최 날짜를 먼저 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늦어도 3월 중에 구조 관련 논의를 진행 할 수 있는 등심위를 개최하거나 결산 등심위 전에 안건 상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이다.

- 기획처장이 4월 말 결산 등심위 이전에 구조개혁 논의를 하는 것을 제안하며, 논의를 하기 전에 참관인이 모두 퇴장 할 것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참관인 퇴장 후 논의하겠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관련 안건을 다루지 않으니 나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결산 등심위 전에 논의가 이루어져서 결산 등심위에는 논의 내용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학생위원들의 제안을 이해하였으니 참관인이 나간 후 협의를 진행하자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다.

- 관리처장이 심의안건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으나 위원 들끼리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왜 안건이 되지 못하는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등심위에 심의할 안건은 아닐지 모르지만, 회의 운영을 위해 일정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 논의사항이라고 답변하다. 일정을 정하는 것도 회의의 일부이니 참관인은 회의 시작 이전에 퇴장해달라고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참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참관과 관련한 논의를 잘 이어 나갈 것임을 전하다.

- 참관인 3인이 모두 퇴장하다.

2. 논의사항

가. 등심위 구조 관련 논의

- 위원장이 2013년도 등심위에서 위원의 노트북 지참 및 사용을 논의 했다고 말하다. 그 당시 노트북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 총 세 대까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라고 했으며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 속기록의 형식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게 했다고 덧붙이다. 오늘 학생위원들이 모두 노트북을 지참했으니 이 부분을 수정하여 학생위원 전원이 사용하게 할지 회의 규율대로 숫자를 제한할지 논의해보자고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노트북을 지참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노트북 사용과 회의 진행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2019년에는 노트북을 지참한 학생위원이 없었다고 말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내규를 공개한 적이 없어 학생위원은 몰랐다고 말하다.

	<p>- 위원장이 과거에 합의된 내용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말한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지 않다고 말한다. 학교위원이 총 몇 년 경력인지를 질의하다.</p> <p>- 위원장이 회의록은 최근의 3년을 열람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회의록의 내용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p> <p>- 예산팀장이 학생위원에게 해당 내용이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말하는 것 같다고 덧붙이다.</p> <p>- 위원장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논의해서 수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며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한다.</p> <p>-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현재 논의가 등심위 구조와 연관되어있으며 현재 홈페이지에 2013년 회의록이 공개되어있지 않다고 말한다. 회의록을 3년만 공개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보통 정보공시에서도 3년간의 등심위 회의록과 예결산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학교홈페이지에서도 3년 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시스템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음을 답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 회의록을 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p> <p>- 기획처장이 작년까지 서기를 제외한 등심위 위원들이 노트북을 지참하지 않았는데 저번 회의부터 학부 학생위원 전원이 노트북을 지참하여 물어본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위원들이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듣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며 노트북 지참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의 노트북 사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검열처럼 느껴졌다고 말한다. 노트북을 왜 사용 하냐는 물음에는 노트북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료를 쉽게 찾아보기 위함이라고 답변하다.</p> <p>-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논의된 부분이나 결정사항을 기록해두면 좋고 노트북이 더 효율적이어서 사용한다고 답변하다.</p> <p>-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열람하기 때문에 따로 기록할 경우 내용이 왜곡되지 않게 주의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회의 중 노트북 사용에 대해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p>
--	--

- 관리처장이 필요하다면 바꿔야 한다고 답변하다. 하지만 회의를 하다 보면 집중이 필요하며 같은 맥락으로 참관을 금지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이전 회의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들을 수도 있어 발언이 전체 맥락과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안건에서 노트북도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사용할 때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발언 내용에 대해 집중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참관인에게 나가 달라고 했을 때 구조 관련 논의를 하자고 해서 나간 것인데 왜 노트북 얘기를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구조 관련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일정을 조율하자고 한 것이라고 답변하다.

- 예산팀장이 결산 등심위 이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일정 조율 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말한다.

- 위원장이 결산 전 구조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3월에는 학생위원과 학교위원 모두가 바쁘다고 했는데 3월 일정으로 등심위를 확정하면 그에 맞춰 다른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지금 당장 날짜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등록금 결산 이전에 구조 관련 논의를 하자는 것에 집중하자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논의하게 되면 등심위 개회로 똑같은 구성원으로 논의가 되는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아니라고 답변하다.

- 학생처장이 등심위 내용은 등심위 위원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등심위의 구성원 중 외부위원이 꼭 와야 하는 일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구조 관련 논의는 현 사안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의 적당한 동수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떨지 제안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학생처장 의견에 동의하며 지금 등심위 성원이

아닌 새로운 인원은 기존 위원에 추가로 오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결산 이전에 등심위 학교위원을 주축으로 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냐고 질의하다.

- 위원장이 약속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안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다.

나. 본회의 안건

- 예산팀장이 이번 등심위 회의록 작성이 학생위원 측 차례임을 말하고, 일정에 대해 안내하다.

- 위원장이 회의록 작성에 대한 상세 일정을 다시 한 번 안내하고, 본인 발언에 대한 부분만 수정이 가능함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관련 요구와 예산 논의를 해도 괜찮을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안건 순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한 사항이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에서 1번을 먼저하고 2번을 들어가면 최종안에 학생요구안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등록금 수입이 증가하지 않으면 힘든 사안이 많다고 말한다. 우선순위에 기반을 두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등록금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1번이 논의되어야 2번도 논의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충분히 답변하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예산을 늘리지 않고 학생요구안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책정을 마친 후 우선순위를 분배하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등록금 책정에서 올해 인상을 계획하는 학교도 있지만, 본교는 동결을 하고자 함을 말한다. 요구안은 예산안의 범위에서 더 투입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등록금 책정과는 연관이 없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산팀장이 1월 15일까지 등록금을 책정해야 해

서 2차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학평의원회에서 등록금을 논의했다면 가등록금으로 고지가 되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가등록금을 고지하는 경우 납부하는 학생들에게 추후 정산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에, 신입생 등록금 납부 일정에 맞추어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다른 학교에서 2월 초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에 등심위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본교는 본교의 납부 일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자 함을 말하고, 등록금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 예치금이나 가등록금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말하다.

- 기획처장이 신설 전공의 등록금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다른 학교의 사례를 무조건 좇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다. 올해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는 학교도 많으며 예산 관련 학생요구안에서 따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동결을 좋은 것처럼 언급되는 데 동결이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기획처장 협의회에서 타 학교의 현황을 듣고 전달한 것이라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들과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등록금 인상규제를 풀어달라고 선언한 것을 보았으며 이는 법인부담금을 올려야 하는 사안이 아닌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그것은 논외라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을 인하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 아니냐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인하는 힘들다고 말하다. 기금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의 요구를 듣고 인건비, 경상비를 줄이면서 동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전입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전입금은 병원전입금 등 여러 가지로 구성된다고 말하다. 본교는 교육비 환원율도 5위안에 들어가고 있으며 등록금 인하는 힘들다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우리 학교가 교육비 환원율이 타대에 비해 훨씬 낮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한 사람의 등록금이 100으로 가정했을 때 그것을 넘어 가면 학교가 사업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200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등록금 대부분은 학생 교육비로 사용되었으며, 상정된 안건 항목을 보고 입학금, 등록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0이 높은지 낮은지가 아니라 사립대학 중 왜 본교가 가장 낮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등록금을 내는 게 그만큼 학생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학생지원비를 높여서 학생들이 마땅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동결로 예산 편성했으며 지출대비 수입이 부족하여, 목적 사업을 위해 기금을 인출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본교 보다 교육비 환원율이 좋은 대학의 경우는 등록금 이외의 기타 재원에 의한 지출이 많기 때문임을 말한다.

- 학생처장이 산학협력단 규모가 큰 학교들은 교육비 환원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연구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고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투자로 보기 어려워 다른 학교보다 교육비 환원율이 낮다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본교는 여대이기 때문에 이공계열보다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이 큰 상황이라고 말한다. 최대한 학생들에게 교육비 환원이 될 수 있게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예산 관련 학생 요구안 안건은 언제 이야기할 것인지, 1번 안건인 등록금 책정 안건을 먼저 의결해버리면 2번인 요구안 논의 안건은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위원의 요구안은 등록금 책정 논의를 충분히 끝내고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나중에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등록금이 고정되어있는 상황에서 학생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저번 회의에서 3가지 안건을 한 번에 의결한 것처럼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하는 것은 학생요구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 아닌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사업부서의 집행 우선순위가 있으며 학생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어 공유하고 있으며, 사업 집행 시 우선순위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말한다. 한꺼번에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의 재정 반절을 학생들이 책임지고 있는데 왜 학생요구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 왜 증액이 늦어지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교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고정 지출 비중이 높아 예산구성 변동이 제한적임을 답하다.

- 관리처장이 의결안건을 먼저하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학생위원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중요하지만, 등심위보다는 단과대학이나 부처 등에서 해결할 사안이라고 말한다. 일단 등록금 책정 관련 논의를 하고 세부 논의사항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산 관련해서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든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인건비도 충분하지 않으며 학내노조와 임금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내노조와 임금협상의 내용은 이미 해결된 사안이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정경비의 용역에서 인상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총무처장이 경비나 미화 같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협상의 여지없이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기획처장의 발언대로 학생요구안에는 불가능한 요구도 있으므로 일단 1번 안건을 논의한 후 주어진 예산내에서 학생요구안을 조정했으면 한다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학생요구안 반영에는 등록금 인상만이 아닌 기금을 사용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 총무처장이 학교 기금도 8,000억 원 수준에서 6,000억 원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본교를 다른 학교와 기금을 비교했을 때 힘들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 총무처장이 절대 금액은 다른 학교에 비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기금이 줄어들었음을 말하며, 앞으로 지속가능성 있는

기금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을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전입금이 거의 없다는 말인데 병원이 흑자로 전환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지 질의하고, 총무처장이 지금은 병원 운영이 적자임을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줄어든 기금이 학교 기숙사로 쓰였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건축기금의 일부를 기숙사 신축에 사용하였다고 답변하고, 총무처장이 건축기금은 기숙사 이외에도 건물 리모델링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학교의 교사개보수, 긴급공사 등이 많고 한번 진행할 때 몇 십억을 지출하게 되는데 경상예산으로 총당이 어려운 경우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말한다. 원금보존기금은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시되는 기금총액과 학교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다르다고 설명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이화 오투기 어린이집이 개설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이화 오투기 어린이집의 공사가 완료되어 3월 1일부터 개관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공사비는 기본적으로 오투기에서 기부금을 받아 충당하였고, 비용지출은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요구를 반영하려면 등록금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요구안에 대한 소요 예산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우니 요구안을 보고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을 말한다.

- 총무처장이 관광객 통제 비용과 관련하여 학생 측에서 하루에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많은 것이냐고 질의한 바 있는데 해당 비용도 부담이 되는 지출이라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관광객 관련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순서에 따라 등록금을 먼저 논의하고 얘기하자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책정 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심위를 추가로 개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고 요구안에 대한 사안을 말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의결을 하게 되면 논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학생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은 학관 리모델링과 수영장 같은 안전의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관 리모델링은 학생들의 직접적 요구라기보다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학관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추가적인 강의실 공급을 위해 공간 활용도가 낮은 곳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다. 해당 공사를 위해 건축기금을 인출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환경을 위한 투자임을 덧붙인다.

- 관리처장이 건축에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학관 리모델링에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등록금 동결과 적립금의 급격한 하락으로 10년 이후의 교육환경 유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건축 예산 편성여부는 투자로 바라볼 것인가 비용으로 볼 것인가의 관점의 차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이 10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고 물가상승률에 비해 교직원의 급여상승률이 동결된 상황에서 학교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학생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적절한 선에서 논의를 거치고 합리적 합의를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 측에서 의결을 못하겠다고 하면 추가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의결을 반대할 수는 있다고 답변하다. 안전은 동결로 상정된 상태이며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동결이 불가피한 안이었기 때문에 상정한 것이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요구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요구안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1번 안전과 2번 안전이 연결되어있다고 답변하다. 학교에는 경상비가 많으므로 학생 요구를 듣고 어떻게 할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하다.

- 총무처장이 2번과 같은 사항은 어떠한 내용에 증액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1번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법인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하다.

- 총무처장이 그것은 등록금 책정과 별개인 얘기라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법인이나 기금에서 현재 많은 지출을 하면 이후 들어올 후배들에게 투자할 재원이 감소하여 향후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법인에서 현재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중 토지가 75%가 아닌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수익이 중요하며 재산총액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토지가 75%가 맞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말하다.

- 관리처장이 우리학교의 자산의 대부분은 학교 소유이며 법인의 수익용 자산이 아니라고 답변하다. 학교법인은 대학의 설립 및 운영주체이며 재산의 권리 주체임을 말하다. 또한 학교 법인이 권리 주체라 하더라도 교육용 자산으로 수익을 내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하지만 대부분이 토지여서 수익이 나기 힘들니 생각해서 투자를 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 예산팀장이 법인에 책무성 관련해 요청을 드리고 있으며 수익사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사정이 비슷하다면 법인을 대변하는 분을 초청하는 것을 제안하다.

- 예산팀장이 논의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하다.

- 위원장이 1번과 2번 중 어떤 것을 먼저 논의할지와 관련해 1번을 먼저 하되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기에는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스피드게이트 관련 번복을 사례로 말한다.

- 총무처장이 번복한 적은 없으며 스피드게이트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2019년 정기협의체 때 추가설치를 약속했는데 이후 보류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총무처에서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먼저 의결사항을 의결하고 이후 학생 의견을 전달해주는 것이 어떤지 제안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법인자료가 본인의 발언과 어떤 상관인지 모르겠으며 학생사회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추상적인 말이라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정기협의체는 실무자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실무 선에서 진행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면 긍정적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라고 말한다. 총무처에서는 답변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임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관광객쿼터제의 상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던데 정확히 알고 있는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학교의 의사결정에서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며 등심위는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정기협의체에서 다루는 게 나올 것 같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정기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회의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등심위의 안건에서 개별안건을 다루는 것은 옳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회의록을 보며 변화가 있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총무처장이 관광객 통제는 시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논의하자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스피드게이트를 다른 곳에 추가로 설치한다면 그것에 따라 예산이 분배되는지 질의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처장이 어디에 더 적합한지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ECC 내에 추가설치를 얘기했었는데 만약 바꾼다면 어디로 바꿀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스피드게이트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비용, 운영의 측면을 다각도로 살펴본 후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정회하고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위원 모두가 동의하여 위원장이 10분간 정회를 선언하다. - 위원장이 회의를 녹음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자제하기를 요청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녹음을 하지 않으면 말하는 속도가 빨라 작성을 못 하거나 목소리 크기가 작아 기록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 회의록에 누락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양쪽에 서기가 있고 이후 회의록 수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괜참을 것이라고 말하며, 공개되지 않은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덧붙인다. 위원들에게 큰 소리로 발언할 것을 요청하며, 위원들의 발언이 들리지 않을 경우에 서기가 안 들린다고 말해 줄 것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법률상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괜참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회의 참여자라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녹음 없이 속기하는 것은 왜곡이나 누락의 우려가 있어 회의록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회의록에서 본인이 발언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음을 말하며, 위원 전원에게 크고 천천히 발언해 달라고 당부하다. 서기 1인이 잘 들을 수 있게 자리를 이동하고, 위원장이 첫 번째 안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p>나. 논의안건</p>
--	---

1)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 및 의결

- 예산팀장이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일반대학원 신설협동과정 등록금 책정을 포함하여 설명하다.

- 위원장이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지 질의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입학금 단축 기간은 왜 5년만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부 입학금 인하계획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5년간 감축하고 있음을 말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2023년부터는 1인당 입학금이 189,000원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향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안내문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사라진다고 보았는데 어떻게 될 예정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현재 입학금 폐지에 대해 공문을 받았으며, 2023년 입학금에 대해서는 교육부 시행 방침에 따를 것임을 말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본교에서 동 대학원으로 갈 경우에도 입학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지 질의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동 대학원 진학 시에도 입학금을 납부함을 답하다.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를 할 때도 입학금을 내서 총 3번 입학금을 내야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물어봤으나 이유에 관한 답변은 받지 못했었다고 말하다.

- 예산팀장이 학칙과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다. 본교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혜택을 받지 않는지 질의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본교 진학인 경우에 이공계열은 학점 3.5 이상, 인문계열은 3.75 이상을 충족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학사와 석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본교 학생만 입학금을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다. 다만 학교는 장학금 혜택이나 연구조교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수업료 감면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BK지원을 통해 장학금 확충을 노력 하고 있다고 말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본교 학부의 장학금은 잘되어있으나 타 대학에서 진입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아동학과의 경우 90% 이상이 타 대학에서 진입해 학자금 대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다른 학과의 경우에는 A급 조교 활동 한가지만으로는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장학금 관련해 어려운 부분은 본교 학생의 경우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점이 상대적으로 타 대학보다 불리하다고 말한다. 그 때문에 본교의 장학금을 우선하고 있으며 타 대학 진입생의 경우에는 조교를 통해 장학금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말한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 운영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없고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이나 대학원에 입학했다면 학부가 어디냐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말한다. 대학원 충원율이 떨어지는 현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 유지가 될지 학교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지적한 부분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성적의 차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이전 회의록에서도 대학원 학생회장이 동일한 내용을 말했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한다. 의견 수합을 빨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 학생처장이 내부논의를 하고 있으며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의 경우 입학금 인하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부 입학금은 교육부에 제출한 입학금 인하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원의 등록금은 계속 동결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동일 학부에서 동 대학원으로 갈 경우에도 입학금과 관련한 계획이 없는지, 대학원장학금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수합하고 논의할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부 입학금 인하는 교육부의 법령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며, 대학원 입학금은 대학원 학생의 교육 수요에 맞게 쓰이고 있으므로 폐지나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답하다. 대학원은 입학금 인하보다는 BK

를 통한 연구 장학금 확충과 아이가 있는 학생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복지와 관련한 부분을 증진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이공계 계열 이외에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이공계열에 협동과정이 많은 이유는 산업 및 학생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는 인문사회계열이 큰 편이기 때문에 각 대학원에서 문,이과 협동을 통해 융합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계열에서도 협동과정으로 BK에 지원할 계획이 있음을 답하다.

- 학생처장이 협동과정 내에 인문계열 전공이 있으며 인문계열 협동과정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공계열 쪽의 수요가 많아 이공계 협동과정 신설이 활발하다고 설명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협동과정 중 스마트큐레이션은 무엇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스마트 큐레이션 협동과정은 융합콘텐츠학을 기반으로 신산업융합대학 내의 전공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학문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관련 학과에 밀줄 처진 것은 무엇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전공 커리큘럼 상 대표성을 가진 학과를 밀줄 친 것이라고 답하며, 융합과정이다 보니 대표학과 등록계열과 해당 협동과정의 관련학과 등록금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책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학과의 매력성도 중요하지만, 대학원은 국가장학금도 지원이 불가한 상태에서 대학원생은 입학금과 장학금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기에 장학금 확충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하며 신설 협동과정들이 BK에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BK 지원을 받으면 학생들이 상당부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설명하다. 대학원 입학금 문제는 간단히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학교는 대학원생들이 TA, RA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등록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학생들도 잘 활용하고 있음을 답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협동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곳은 소외당하는 것이냐고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협동과정은 본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전공에서 융합하는 것이 산업수요에 맞다 생각하여 신설을 요청하면 본부 심사를 거쳐 신설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신설된 협동과정의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신설된 협동과정만 회의 자료에 보여진 것이며, 이것보다 더 많은 협동과정이 있다고 말한다. 또 각 과정에서 BK를 준비하기 때문에 혜택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답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학부 수업료의 경우 동결이라고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인하가 되는 구조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계획(안)에 따르면 연간 약 6억 원의 입학금 수입이 감소하고, 5년차에는 약 30억 원의 입학금 수입이 감소함을 말한다.

- 기획처장이 학부 신입생 입학금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로 구성되므로, 입학금이 인화된 만큼 등록금이 인하되었음을 말한다.

- 위원장이 첫 번째 안건인 등록금 책정 안에 대해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입학금 폐지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 입학금 폐지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국립대 입학금의 경우 교육부에서 입학금 완전 폐지가 내려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립 대학교는 어려운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국립대는 교육부에서 경상비, 인건비 등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국립대는 학생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5년 동안 일정한 비율로 줄일 필요 없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국립대에서는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펴면 수입 감소분을 보전을 해준다고 덧붙인다. 고등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값등록금을 제시했으나 예산지원 방안은 사라지고 사립대학에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현재 힘든 것이라고 말한다. 본교는 5년의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사립대학에서 정부의 제안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말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국가가 사립대학에만 지원을 안 해주는 면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기획처장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고등교육도 예산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공재원의 일부를 사용하는 법령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왜 논의의 흐름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교육부에 대응하는 방면으로 갔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교육부의 평가를 기준으로 대형 재정지원사업의 지원 시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사학들이 교육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함을 말한다.

- 위원장이 기부금 모금의 어려움과 재단의 전입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보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과 법인의 사정을 알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이 인정한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수익사업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과 법인의 사정을 알지만, 장기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항상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실제적인 부담과 현실적인 고민으로 인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법인의 수익사업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기에 본교는 위험 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한다. 법인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01월 14일 기사를 보면 흑자로 전환될 것 같다는 병원이 무료 예방접종 관련 실수를 해 학교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다른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기사화 안 될 수도 있는데, 본교이기 때문에 더욱 기사화 되는 경향도 있다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이와 관련한 대외이미지 강경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이 학교위원들이 학생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예방접종 사례를 들며 목동병원과 이대병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병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음을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이화여대의 이름을 건 병원에서 실수하면 본교의 의대 학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이 충분히 공감하며 심의할 안전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빠르게 마무리를 하려는 상황에 대해 회의 이후 일정의 여부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회의 종료 시각을 10시로 하는 것을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한 시간 안에 끝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많은 논의를 이미 진행했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일단 의결해야 할 것을 하고 넘어가자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 산정방법 혹은 이외의 자료 발제를 묻는다.

- 예산팀장이 교육비 환원율과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월 평균 가계수지를 설명하다.

- 관리처장이 부가설명을 하며 논의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지난 회의에서 논의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첨부한 것이라 말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참고자료였다면 회의 2시간 전부터 자료열람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책정관련 근거 자료이며, 등록금 인상(안) 관련 사항은 열람하지 않았음을 답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 회의에서 의결 시 학생위원이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근거로 자료열람 허용을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붙임자료는 당일 이전에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이번 안건이 등록금 인상이었다면 당연히 미리 열람을 하였겠지만, 이번에는 등록금 동결이라 회의장 내에서 첨부한 것이며 다음 회의에는 등록금 책정 근거자료를 사전 열람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속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충분한 검토를 위해 읽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인상률 산정방법을 설명하다.

- 관리처장이 물가 상승률 공지 여부와 물가 상승률이 낮은 이유를 덧붙인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이 자료를 외부로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공개된 자료이므로 가능하다고 대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 회의 사항을 근거로 차등 등록금

근거 검토 여부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교육부에서 발간한 관련 보고서나 논문을 검토해 보았을 때 등록금 차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 마련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며, 1980년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등록금 차이도를 적용하여 이후 인상율만 적용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계열별 차등등록금에 대해 완벽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하다. 다만 각 단과대학별 개설교과목수, 교과목당 학생정원, 부복수학생수 등을 고려했을 때, 계열별 등록금 차등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대학비 배정 시에도 단과대학별로 등록금에 따라 차이를 적용하여 배정하고 있음을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국제화 특구가 무엇인지와 교육 국제화 특구 내 외국인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질의 부분은 평균등록금 산정방식 관련 사항으로 본교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답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외국인과 내국인이 등록금 책정에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차이 없이 책정되고 있다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본교는 차등 등록금을 책정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위원장이 교환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답하다.

- 신산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실험실습비와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어려운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계열에 따라 대학 마다 실습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원가 계산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 신산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실험실습비 공개는 단대 내에서 진행되는 사안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결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예정이며, 단대 중심으로 자료를 열람하면 된다고 말한다.

- 신산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사범대 수학교육과와 과학교육과가 같은 등록금을 납부하지만 실험 실습 과목에서 차이가 있음을 예를 들며 이것은 단

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실습비는 전공마다 사용 용도가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사학과는 답사 등의 형식이며 교과목 운영에 따라 달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사회교육과의 경우에도 답사 비용은 학생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답사 지원기준이 없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대학의 사업비를 배분하고 단대에서 사업을 구성한다고 말한다. 대학마다 특성이 있기에, 집행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본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음을 말한다.

- 관리처장이 각 단대에서 실험실습비 범위 내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학과장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답사의 예를 말한다.

- 학생처장이 답사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상 해당 지역의 답사가 필요하면 가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비용의 문제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단대에서 실험실습비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현재 학과 행정실에 공개 요청을 하면 단대의 사안이라고 말하며 단대에 공개 요청을 하면 학과의 사항이라고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본부보다 더 작은 단위로 가는 것은 책임 전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본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본부는 단과대학별로 대학비를 배정하는 것이고, 세부 구성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파이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각 대학별로 실습비의 구체적인 사용 방향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며 대학별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어렵고, 미국 또한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실험실습비는 단대별로 공개 될 것이며 학생위원이 언급한 사례는 교무회의에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인다.

- 기획처장이 단과대학별로 공개된 후 학생들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소통하고 논의할 기회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본부 측에서 실험실습비 공개를 단과대학에 장려할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본부에서는 단과대학의 세부적인 집행 내용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학과나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논의된 내용을 전달 해주면 추후 본부 차원에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단과대학별로 공개에 대한 합의가 안 된 것인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공개를 하되, 방식과 절차는 단과대학 특색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답하다. 다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된 자료가 아닐 수 있으나 점진적으로 학생들의 피드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차등등록금의 근거는 마련하기 어렵는데 그 근거는 개설 교과목 수나 교수-학생 비율, 실험실습비 등이며 구체적인 실험실습비는 단과대학별로 4월 말에 확인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위원의 말이 맞으며, 차등 등록금 근거는 1980년대 교육부 지침이라고 덧붙인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타 대학은 안건 별로 의결하고, 최소 4차 회의까지 등심위를 진행 하는 것에 비해 왜 본교는 2차까지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왜 차수에 얽매어야 하는지, 다루는 내용과 결정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닌지 되묻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래서 학생요구안과 관련하여 말씀 드린 것인데, 시간이 필요하다 혹은 여기서 확답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면 확답을 줄 수 있을 만큼 개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은 예산 관련한 내용이 정기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등심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협의체를 통해 진행 하고 있는 것이라 큰 차이가 없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정기협의체와 등심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다르다고 말한다. 이전 등심위에서 등심위 참관은 어려우나 협의체 참관은 고려해보겠다고 했으나 결국 협의체 참관도 불허했다고 알고 있음을 덧붙이며 이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답변을 했기 때문이므로 더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등심위는 등록금과 예산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곳이고, 그 외의 안건들은 다른 곳에서 논의 할 수 있으며 회의 목적과 범위에서 최대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협의체에서 논의하라는 발언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하겠으며 정기협의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왜 본교는 2차 등심위까지만 진행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과 관련된 내용과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했으며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말한다. 만약 학생위원들은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학생 요구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 되었으니 다음에 논의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인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본인의 질의가 학생 요구안에만 직결이 되어있고 등록금 책정안과는 직결되지 않는지 질의하며 본교가 등심위를 2차만 개최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 했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두 번의 논의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되묻다.

- 학생처장이 학생들의 요구를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재차 말한다. 현재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고정지출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이고, 학생들의 요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덧붙인다. 추가로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등심위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여러 타 대학을 확인 해보았는데 편차가 심하며 1:1로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길게 진행되는 회의가 효율의 측면에서는 떨어지며 위원들의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한 조건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다고 덧붙인다.

추가로 등심위를 여러 번 개최하게 될 경우 결론에 변화가 생기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며 별도의 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등심위에서 등록금에 집중 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학생위원 질문의 핵심은 타 대학은 등록금 책정안 이전에도 등심위를 3-4차례 개최하며 2월 중으로 등록금이 책정되는 학교도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고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추가로 구조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관련 추가 개최는 최소한의 합의라고 생각하며 지난 1차 등심위에서 3가지 안건을 한 번에 의결한 점, 1월 15일까지 등심위를 두 번 만에 끝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다. 타 대학의 경우 구조 관련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고, 전임교원확충 등 학생요구안을 반영할 것을 약속한 사례도 있다고 말한다. 결론이 달라지냐는 학교 측 발언은 해보지도 않고 결론을 확정 짓는 것이며 학생요구안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대학원 협동과정도 신설되었고, 등록금 수납일정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해야하기 때문에 회의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회의 개최 횟수에 대한 논의만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의결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지난 1차 등심위에서 학생요구안에 대해 추후에 논의 하자고 이야기 했으며, 기획처장이 구조와 결산 등심위에서 학생 요구안에 대해 논의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것인지 재차 확인하다.

- 기획처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논의 하겠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후 등심위에서 학생요구안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 해줄 것인지 질의하다. 협의체만으로 부족하고 등심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학생요구안이 등록금 혹은 예산과 관련 있는 안건을 상정 해달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19년에도 등심위를 2차만에 끝낸 것에 대해 규탄 했는데 올해도 2차 만에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4차까지 개최할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예산과 관련된 학생 요구안에 대한 안건 상정이

요청 되었을 때 등심위 안건에 상정하겠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과 관련된 안건도 추가적인 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 등심위부터는 1월 중에 4차까지 등심위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개회 횟수를 정하고 시작하는 회의가 없으며 내년의 일을 올해 논의 할 수 없음을 말한다. 등록금, 예산과 관련하여 학생 요구안이 안건 상정 요청되면 등심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답하다.

- 학부 학생회장은 무조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 위원장은 학생들이 등록금과 예산에 대한 안건 상정을 요청할 경우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횟수에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횟수보다는 어떻게 논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행정적으로 등록금고지서를 학생들에게 고지하는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오늘 중으로 의결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인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에서 예산을 쉽게 늘리고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학교 측에서 의지가 없으면 발전이 없으므로 예산 관련 요구안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건을 상정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최소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요구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 요구안 안건을 상정 해달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달라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안건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들의 요청을 알아야 상정 해줄 수 있으므로 요청 내용을 보내주면 되는 것이라고 답하다.

- 기획처장이 매년 상황도 달라지고 위원도 달라지는데 요청하면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등심위가 예산 관련 학생 요구안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학생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학생들의 요구안 안건을 상정해주되 단, 그 안건이 예산 혹은 등록금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차기 등심위부터는 4차 회의 이상을 개최 해줄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매년 상황과 위원이 달라지고, 타 대학도 최소 차수를 정해두고 진행하지 않으므로 확답을 주기는 어렵다고 답하다. 추가로 사전 열람 기간을 늘려주겠다고 답하다.

- 예산팀장이 사전열람을 일주일 전에 해주는 것은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이 맞물려 있기에 확답이 어려우며, 열람과 관련된 것을 다음 회의 때 일정을 살펴보고 답변하겠다고 말하다.

- 위원장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아무리 중요한 회의라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시간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행정적 어려움이 있음에 양해를 부탁하며, 두 번째 안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안건이라 하였으니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 한 개씩 따로 의결 할 것, 사전 열람 자료와 요청 자료를 최소 3일 전까지 줄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타 부서에 요청하여야 하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요청 공문을 빨리 주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답하다. 추가로 사전열람은 최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할 것이며 열람 방식에 대해서는 더 논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회의 내에 쓰이는 자료는 전부 열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다.

- 위원장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며 진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아직 한 명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하자 위원장이 기다리겠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의결에 앞서 기자회견, 입장문에서도 볼 수 있듯 등록금 책정을 회의 두 번 만에 진행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며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추가 개회를 해줄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고지 일정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의결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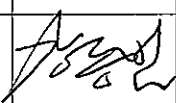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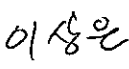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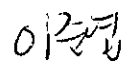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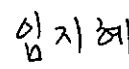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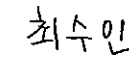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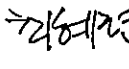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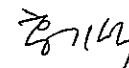
- 학부 학생위원 5인이 전원 퇴장하다.

- 위원장, 기획처장, 관리처장, 예산팀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고, 대학원 학생회장 1인이 반대하여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학부 입학금 2017학년도 입학금 기준 16% 금액 인하, 수업료 동결
 - 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 (일반대학원 신설 협동과정 등록금 책정 포함)
 - 학부 계절학기 및 학점등록금 동결
 - 대학원 계절학기 및 교과목 등록금, 연구등록금, 논문등록금 동결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0년 1월 14일

확 인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강동범		위 원	이상은	
위 원	김민서	김민서	위 원	이준엽		
위 원	김우정	김우정	위 원	임지혜		
위 원	김효민	김효민	위 원	최수인		
위 원	백옥경	백옥경	위 원	최혜련		
위 원	오희아	오희아	위 원	홍기석		
위 원	유세경	유세경				

작성 자

음악대학 공동대표 이지연 